조계종, 올해부터 '재가자 포살' 시행한다

조계종 포교부, 포교단체장 회의서 계획 공유

종책 공모 수상작에 기반해
하안거·동안거 年2회 시행
교구본사 등서 시범 운영

출가학교 확대로 출가 진흥
30돌 파라미타 기념사업 등
전국 포교단체 사업 발표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포교부는 2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조계종 포교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 직후 기념촬영.

조계종이 올해부터 재가신도를 대상으로 포살법회를 운영한다. 재가자들에게 계율을 점검하고 참회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행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계종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는 2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조계종 포교단체장 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과 일정을 소개·공유했다.

올해 포교부는 주요 종책 전략을 △출가장려 △수행 대중화 △신도 조직 재구조화 △신도 등록 사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포교부는 재가신도들의 수행 문화 진작을 위해 처음으로 '재가자 포살법회'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재가자 포살법회'는 조계종연구소가 지난해 처음 시행한 '종책제안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향림 스님(봉녕사)의 '재가자 포살 실행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계율과 참회를 실천하는 수행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게 기획 목표다.

재가자 포살법회는 교구본사 등에서 우선 시범 운영되며, 하안거와 동안거 기간 보름이나 지정일에 걸쳐 연2회 시행된다. 포교부는 3월 중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재가자 포살본 및 108 참회문 등 프로그램을 개발을 진행해 올해 동안거부터 포살법회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결계 포살 제도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 왔는데 수행 공동체 문화를 정착·진흥하기 위해 재가불자들도 결계 포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면서 "재가자 포살본, 108참회, 계율 수행 점검 등을 통해 수행의 지속성을 높이고 향후에는 권역별 사찰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가 장려를 위한 출가학교는 올해 더욱 확대된다. 지난해 호평 속에 진행된 수덕사, 선운사에 이어 올해부터는 권역별로 확대돼 신흥사(강원), 범어사(부산), 통도사(경남), 동화사(대구)에서도 출가학교를 만날 수 있다. 월정사, 봉녕사, 붓다선원 등 기존 출가학교 운영사찰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가 장려를 추진한다.

정무 스님은 "종단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소년, 청년 출가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며 "포교부에서 종립학교, 군법당 등 일선 현장에서 상담과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출가 장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신도증에도 변화가 생긴다. 3월 중 신한은행과 신도 등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예정돼 있으며 다양한 기업·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멤버십 혜택 증대도 계획 중이다. 교무금 전자납부 시스템 도입과 어린이·청소년 전용 종단 신도증 발도 추진된다.

정무 스님은 "종단 애종심과 제적 사찰 소속감을 증진하기 위한 신도증 개편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신도증 결제 시스템 등 편의성 부문을 증진시키고 교무금도 현실화해 신도 목적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교신도단체 주요 사업 계획들이 공유됐다. 조계종국제포교사회(회장 조규태)는 올해부터 '국제포교불교대학'을 본격 운영한다. 국제 포교를 위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포교사회의 각종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국제포교불교대학' 예비 국제포교사를 대상으로 한 품수 과정과 불교 초심자를 위한 기본과정, 국제포교사 및 일반 불자를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으로 구성된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파라미타는 3월 중 3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념사업의 시작을 알리며 4월에 열리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는 30주년 사업 홍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7월 28~30일 청소년 연합캠프와 30주년 기념법회를 함께 개최하며 10월에는 창립 30주년 메타버스 전시관을 오픈한다.

중앙신도회 "내실 다지는 조직 강화의 해"

2월 24일, 제28-2차 대의원 총회
2026년 신년사업 계획안 등 공유


중신회는 2월 24일 서울 을지트윈타워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제28-2차 대의원 총회'를 열고 2026년 신년사업 계획안을 공유했다. 사진은 총회 후 기념촬영.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 이하 중신회)가 2월 24일 서울 을지트윈타워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제28-2차 대의원 총회'를 열고 2026년 신년사업 계획안을 공유했다. 중신회는 올한 해의 기치를 '조직 강화의 해'로 정하고 '신도조직 역량 강화' '포교결집' '사회공동선구현' '교육 수행' 등에 맞춰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정원주 중신회장은 "지난해 12월 신설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재 중앙신도회의 조직 현안을 파악하고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며 조직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기존 사업을 굳건히 하면서 신도조직 활성화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신회는 먼저 소통과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신도조직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지난 1월부터 전국 교구본사를 순회하며 교구장 스님 및 교구신도회장 등을 예방해 각 교구의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5월 중 '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를 개최해 교구신도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3월 12일에는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초청, 오찬과 함께 교구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고언을 청해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중 스포츠와 결집대회를 통해 지역 포교결집에도 앞장선다. 4월 12일 밀양 용궁사 일대에서 조계종 산악회와 함께 트래킹하는 포교결집대회를 시작으로 6월 23일 중앙신도회장배 친선 골프대회와 10월 말 예정된 총무원장배 전국불자 자선 파크골프대회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대중 스포츠를 연계한 조직강화 및 포교 활성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불교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불자로서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다.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를 비롯해 '불교굿즈 공모전'을 기획하는 등 K-불교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대중적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사회적 역할을 한층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과 수행을 기반으로 중앙신도조직 강화에도 앞장선다.

3월 21~27일 '중국 선종사찰 순례'를 시작으로 국내외 사찰 순례 및 템플스테이를 추진해 임원 간의 신심과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올바른 수행문화 정립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2026 NGO 공모…1억원 지원

교육 · 환경 등 4개 분야에서
이메일로 3월 18일까지 접수

조계종 사회부와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사회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NGO 등을 대상으로 'NGO 공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속가능! 공공가치!'를 기치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사업은 불교적 자비정신을 현대적 공공가치로 승화하고 종교적 경계를 초월해 일반 NGO들과 연대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혁신 모델을 구축하고자 기획됐다.

△저소득층·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는 교육 및 심리치료,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동선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약자 역량강화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지역사회 에너지 전환 교육·생태계 복원 활동 등 시민들의 실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해외 빈곤 지역의 식수·보건 환경 개선 및 국내 탈북민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직업 훈련과 정서적 지원 등 범인도적 차원의 실무 사업을 포괄하는 국제개발·탈북민 인도적지원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꿈 찾기 멘토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다음 세대가 전인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미래세대 역량 강화 등 총 4개 분야에서 실시된다. 지원 규모는 총 1억원이며 선정된 프로그램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접수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며 최종 선정 시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26일 종단홈페이지 및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http://dreaminus.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02-737-9553

임은호 기자

수덕사·선운사 단기출가 참가자 모집

수덕사, 4월 1~10일 열흘 동안
선운사, 4월 3~12일 '쉼' 주제

'출가절벽' 대응책으로 전국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단기출가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와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단기출가학교를 연다.

수덕사는 4월 1~19일 9박 10일간 경내에서 '수덕사 제2기 단기 선출가학교-나를 찾는 열흘 간의 출가'를 실시하고 대중생활이 가능한 17~65세 남녀 각 10명, 총 20명을 선발한다. 3월 20일까지 수덕사 홈페이지(www.sudeoksa.com)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과 이메일(sudeaksa @hanmail.net)로도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사본과 건강검진서도 동봉해야 한다.

1차 서류 합격자는 3월 23일 발표하며 전화 및 화상으로 2차 면접 후 최종합격자는 3월 26일 발표한다.

수덕사 측은 "사람이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다는 뜻은 나를 알아 얻는데 있다는 만공 선사의 말씀을 바탕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041-330-7788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4월 3일 고불식을 시작으로 4월 12일까지 9박 10일 동안 선운사 제2기 단기출가학교 '쉼, 그리고 시작'을 개최한다.

선운사 제2기 단기출가학교 '쉼, 그리고 시작'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을 비롯해 지도법사 스님들이 법문과 지도를 맡아 참가자들이 올바른 불교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선운사 홈페이지(http://www.seonunsa.org)에서 가능하다. 15명 선발 예정이다.

경우 스님은 "선운사는 교육수행 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향후에도 봄, 가을로 연 2회 단기출가학교를 운영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출가 저변 확대 및 승가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세대 및 일반대중에게 불교 가르침을 전해 자아 성찰 및 내적 성장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63-561-1422

조계종의 핵심 주요 과제인 출가 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단기출가학교는 정식 출가에 앞서 출가 수행자의 생활과 수행을 직접 체험해 보고자 하는 이들이 템플스테이나 수련회가 아닌 실제 출가 수행자에 준하는 일상과 청규를 경험하는 과정이다.

임은호 기자

송파세모녀 12주기 "가난, 죄송한 일 아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2월 26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송파세모녀 12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사노위, 2월 26일 추모제 봉행
"소외 이웃 위한 정책 최우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가 2월 26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송파세모녀 12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서울 송파 석촌동에 거주하던 송파세모녀는 2014년 2월, 질환과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남겨 두고 생을 마감했다.

사노위원 한수 스님은 "가난은 죄송한 일이 아니"라며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에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은호 기자

'나는 절로 선운사' 호남거주 미혼남녀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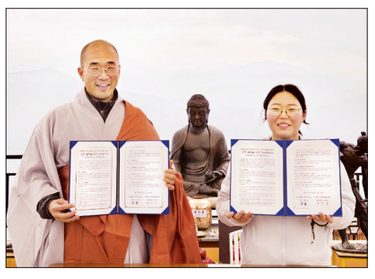
전국민적인 관심과 뜨거운 호응 속에서 개최되고 있는 '나는 절로'가 올봄, 천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고창 선운사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사찰 지역 기반으로 진행, 호남권 거주자 및 연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은 3월 28~29일 1박 2일간 '나는 절로, 선운사'를 개최한다.

종교에 상관없이 △호남 거주자 △호남과 깊은 인연이 있는 2030 미혼남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3월 5일 오후 5시까지 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의 공지사항 구글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02-723-2217 임은호 기자

대불련·홍대선원 청년 전법 활성화 손 맞잡았다

저스트비 히말라야서 MOU
"청년불자 든든한 안식처" 약속



글로벌 수행놀이터로 불리는 JustBe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 이하 홍대선원)과 KBUF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선민지, 이하 대불련)가 업무협약을 맺고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생 청년 전법 포교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홍대선원과 대불련은 2월 7일 네팔 포카라에 위치한 저스트비 히밀라야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

이날 양 기관은 국경과 경계를 허물고 대학생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든든한 안식처로서의 책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홍대선원은 대불련 회원의 템플스테이 다인실 금액을 3만원(1인/1박)으로 할인해 진행하고 대불련 소속 동아리 간 연합법회와 같은 특별행사를 지원하는 등 청년 대학생 전법활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준한 스님은 네팔 포카라에 저스트비 히말라야를 건립하고 순례길 만들기를 시작하게 된 연유를 설명하며 "이곳은 부처님이 태어난 고향이자, 출가 전 태자 시절 때 설산을 오르락내리락하던 히말라야에 한국 사찰이 없는 점이 안타까워 사찰을 짓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룸비니까지 걸어가는 순례길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 내면의 힘을 키우고 지혜로워져서 인연되는 모든 법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민지 중앙회장은 "홍대선원과 대불련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 주는 울창한 숲으로 자라나길 서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순례길 복원이 여법하게 진행돼 앞으로 대학생 청년 불자들이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서원하는 '1평 복전(福田) 불사'에 동참, 모연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임은호 기자